

#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단, 교육 책임자에게 듣는다’

### 미래목회포럼 제18-5차 정기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지난 10월 6일(목)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제18-5차 정기포럼을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단, 교육 책임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굵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한국교회에 미래를 밝히고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포럼회장 미래목회포럼 다음세대본부장 설동주 목사(대전약수교회)의 인도로 서기 박재신 목사의 개회기도, 대표 이상대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예정활동·기감·예장고신·예성 교단 교육 책임자 등의 발제와 2명의 패널 발표, 질의와 응답, 부대표 이동규 목사의 마침기도,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의 광고로 진행되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교회)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음세대는 종교다원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각인된 안타까운 세대”라고 말했다. 이목사는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각 교단 교육 책임자들의 의견을 모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깊이 있는 말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장 설동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포럼은 노재경 목사(예장 합동 교육전도국장), 원영인 목사(기감 교육국 차세대교육부장), 이기룡 목사(예장 고신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예성 교육국장)가 발제했고 김언약 선교사(미래세대선교회 대표)와 정재명 목사(성복교회)가 패널로 순서를 이어갔다.



예장합동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예장합동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 “각년의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회 비전을 수립하기 어렵고 교육적 비전도 주의를 끌기 어렵다”며 “그래서 교회의 평안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에서 세상의 평안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부흥에서 세상의 부흥 방도를 제시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예정활동이 ‘살롱·부흥’을 주제로 전도운동을 통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며, 교육적 측면의 ‘병화’, ‘하나님의 살롱운동’을 설명했다. 실행 계획으로는 문화적 접근(축구대회, 토론 배틀 등 다음세대에 걸맞은 문화적 장 마련), 공적 교회로의 접근(신문 운동 등) △실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는 비전 제시 등을 언급했다.

김언약 선교사는 “지금의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여서 통합적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 받고 적용할 현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 교육국 차세대교육부장 원영인 목사는 ‘다음세대 이해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청년들의 요청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영상과 이벤트가 있는 새로운 청소년 교재, 설교보조영상 등을 만들어 교회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영상 콘텐츠들 통해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교회에 열려있는 사고를 갖게 되고 청년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예장고신 교육국장 이기룡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의 양식 제6차 교육과정 킷킷 스토리를 중심으로’에서 6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출간한 주일학교 교과서 시리즈인 ‘킷킷 스토리’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목사는 “킷킷 스토리는 단순한 주일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개발되었으며 자녀들이 주일에 말씀을 배우기 전 부모, 조부모와 교사가 먼저 수요일 저녁예배를 활용해 교역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중 구역,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다음 주일 저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소개했다.

예성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는 ‘메타버스와 교회 교육’에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현재라는 시간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디지털화된 지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회교육에 대한 점적으로, 지난 여름 한국교단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과 연계해 여름 사역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예성 교육국이 만든 플랫폼은 개교회에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되고 있다고 전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오로지 힘쓸 일’-한인 디아스포라 복음화 및 세계복음화

##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80여 개국 200여 명 참석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4일(화)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크로스탈볼룸에서 ‘오로지 힘쓸 일’이란 주제로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대회는 세기총 1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의 처음을 알리는 대회로 이날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10월 5일(화)부터 8일(토)일까지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에서 ‘1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선교사들과 함께 영인 한국기독교교수기자기념관 등 국내 성지를 방문했다.

또 10월 9일(주일)은 안디옥성결교회(홍석영 목사)에서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1일(화)부터 10월 19일(수)까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기념대회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대회준비위원장 황의춘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가 개회사를 했다.

황의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10년 전 세계 180여 나라에 신성한 한인 개척교회(개신교)를 하나로 연대하여 이 세대의 사회에 연합과 일치로 공동대처가 절대 필요했다”라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기초적 유익을 지나 이제 역동적으로 나아가 청년 20년기로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개회사를 전한 신화석 목사는 “지구촌 전역에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신앙증신과 이들을 통한 한국인 디아스포라 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출발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복음화 되는 일에 불을 붙이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회공동준비위원장 정황영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가 대표기도를, 대회공동준비위원장 김동근 장로(몽골기독교총연합회 법인회장)가 성경봉독을, 김경 교수(세기총 홍보대사)가 특별전양을 했다.

이날 세계교회 40사대를 향하여 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한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직전대표회장, 새에덴교회)는 초대교회와 사도적 교회를 말하는 ‘교회 40’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메리츠에 빠져 있는 제도적이고 화석화된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면서 “포스트 엔데믹 시대에 교회 세움을 위해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윤행하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뒤 박희소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와 조일래 목사(세기총 제대 대표회장, 법인이사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대현 총무 실장이 박보규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가 축사를 한 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세기총은 10주년을 맞아 다문화가족 장애인, 탈북인 할머니, 코피노, 자립준비청년 등을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사단 찬양선교사, 지구촌선교회 위상선교단, 미국 뉴저지 목사합창단 등의 축하공연 및 장식전 목사(세기총 2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살롱나비-개천절을 보내며

# 인류사회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다

삼천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점령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이한 나라보다 침략을 많이 받아 왔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세가 주는 고통 속에서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왔다. 계절은 무더운 여름이 저만치 가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을 지키고 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특히 하늘이 열리고 시작되었다는 개천절은 국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살롱나비는 2022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개천절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기여의 정신이라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정신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선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논평문을 발표하고자 한다.

### 1. 자유, 평화, 평등, 인간 존엄, 인류평화 기여의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개천절 홍익인간 이념은 단군신화에서 유래하고 있다. 물론 대종교에서 말하는 천신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내려오고 있다. 다만 고조선의 발생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대종교의 신앙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고조선과 조선의 건국이 10월 3일이라는 점에

서 일체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다만 개천절의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는 해석학적 과제로 남아 있다. 영원 전부터 자존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다.

이렇듯 한반도 역사의 근간을 이룬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우상인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

홍익(弘益)인간의 이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사상이므로,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기여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 정신과 합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지구촌 모든 인간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겠다는 것이므로 국가의 건국이념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2.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평등, 인간 존엄, 인류평화 기여를 중시하면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개천절은 인류에 기여하는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기여를 중시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은 예부터 정직하고 착한 면이 있다. 자유와 평화를 중요시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한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근본가치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워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개천절을 맞이하여 남북의 관계에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 남북통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개천절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류에 기여하는 자유와 평화의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인간존엄이란 가치의 시대적인 실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존엄이 실현되어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자들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이 존속되는 것은 규탄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곳곳에도 개인의 생명 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다. 국민적인 선택은 결국 주위의 남은 자들이 평생을 두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이 있기를 바란다.

### 3. 말로만이 아닌 실현 가능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달려가야 한다.

사람은 크고 작은 정신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존엄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말로만이 아닌 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행정, 입법, 사법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개인의 발전, 가정과 사회를 밝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시대는 윤석열 정부가 정쟁에 휘둘러 보편적인 질서가 훼손되고 기존의 가치와 이념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평화 기여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여 구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한국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소망으로 깨어나야 하겠다.

### 4.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가 아닌 자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자.

북한은 우리나라의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이고 영토도 대한민국의 소유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끼리 민족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적화통일을 노리는 그들은 해방부터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은 광장을 꿈꾼다. 그들이 원하는 일인독재 체제는 비민주주의의 국가로 자유, 평화, 인간존중, 인권은 사라지고 특정 집단의 권력만 남는 피라미드 형태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은 핍박을 받으며 북한의 선관한 동포들처럼 고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끼리 민족이라는 주장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통일을 하지는 말도 안 되는 실언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받는 남북 평화통일의 완성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5. 대한민국 건국절을 제정하여 국가의 탄생을 기억하는 국민이 되자.

개천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절을 국경일로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역사의 근간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고조선이 탄생한 것을 기념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건국일을 중

요하게 생각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사실을 부정해 버리는 역사 왜곡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에게 나라의 소중함과 바른 근현대사를 폄하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회의, 입법기관에서 건국절(1948년 8월 15일)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 건국절이 제정되어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탄생을 제대로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 6.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자유방종에 빠진 국민 의식에서 단호히 탈피하여 나오자.

경제 10대 강국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나라는 74년 전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일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기다리며 사회에서 알바형태의 삶을 누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자유방종을 몰고 왔으며 사회 곳곳에서 물질주의 사회로 전락하는 수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씩씩 넘쳐나는 것들에 대한 단호한 추방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기독교정신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7. 연으로 이어집니다